

<1인 생활자를 위한 임종관리>
시범사업 보고서

목 차

1. 여성미래 <든든한 프리카레> 소개	... 3
2. 1인 생활자를 위한 임종 준비(1) : <애뜻한 추모식>	... 4
1) 애뜻한 추모식 진행 계획서	... 4
2) 추모식 준비를 위한 워크샵(1)	... 7
3) 추모식 준비를 위한 워크샵(2)	... 38
4) 애뜻한 추모식 조문보	... 51
3. 1인 생활자를 위한 임종 준비(2) : <임종 코디네이터>	... 55
1) 임종 코디네이터 역할 찾기	... 55
2) 임종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제안	... 63
별첨 1. ‘임종과 죽음에 대한 관심을 묻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 67

* 이 사업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여성미래 <든든한 프리카레> 소개



공짜 카레 식사로 맺어진 인연으로 2025년2월17일 여성미래
회원소모임으로 시작

1) 모임 동기

- 원하는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고민
- 삶과 죽음이 연결되는 돌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학습할 수 있는 곳의 필요
-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는 서비스가 아니라 당사자 중심의 돌봄이 일상화 되는 다른 사례와 선택지가 필요하는 문제의식

2) 모임 방향

- 죽음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정리하기
(예. 임종관리사, 친환경 상조회, 여성 상조회, 중장년 1인 가구 애도 모임 등)
- 한 사람의 인생 설계 측면에서 상호 돌봄의 기준을 세우고 임종 관련된 꾸준한 고민과 제안을 하는 민간 영역의 당사자 모임으로 활동하는 것

2. 1인 생활자를 위한 임종 준비(1) : <애뜻한 추모식>

1) 애뜻한 추모식 진행 계획서

(1) 진행 목적

■ 우리 모두는 가족 및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임종과 죽음을 겪게 됩니다.

불가피한 이별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와 추모는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잘 견어내고 남겨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 과거 전통적인 임종과 장례 문화를 통해 가족과 친족, 거주 지역 공동체 중심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상호부조와 품앗이의 전통을 살려 비교적 수월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빠른 속도로 가족 중심문화와 지역 공동체 문화가 개인 중심 문화로 변화해가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이고 상업화된 장례 문화만이 어쩔 수 없는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애도와 추모의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황망한 유족들은 장례의 대부분을 업체에 의탁하게 되었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불필요한 재정적 지출을 하는 것은 물론, 고인이나 유족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허례허식 장례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장례 후 비로소 찾아오는 상실감이나 슬픔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장례식도 생겨나고, 비록 가족이 아니더라도 고인의 지인들끼리 작은 추모식을 치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결혼 방식이 다양해지는 것처럼 장례도 내가 치를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고 품위 있게 <애뜻한 추모식>을 치를 수 있어야 건강한 애도와 추모가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후원으로 건강한

추모와 애도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작은 추모식입니다.

(2) 진행 내용 및 일정

항목	진행내용		일정
사전 준비 워크샵	1차	신청자들 각자의 신청 취지 공유 '채비'와 함께 <애뜻한 추모식> 취지와 진행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	9월2주
	2차	나만의 추모식 기획해보기 준비해야 할 사항들 점검하고 실행하기	9월3주
추모식 행사 진행 준비	2회차	1팀 선정, 행사 진행 구체적 준비	9월3주
추모식 진행	1회차	지인 초대 : 15명 정도 참관인 초대 : 15명 정도	9/26

(3) 진행 전 협의 사항

■ 본 행사는 <사전 준비 워크샵>과 <애뜻한 추모식> 진행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행사 당일 추모객을 위한 음식 준비는 주최자가 일부 부담합니다.

■ 준비 과정부터 추모식 행사 진행과 그 후까지 전 여정을 한겨레 신문 기자가 취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고 및 자료용 영상과 사진, 기록 등이 촬영, 제작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이러한 취지의 행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캠페인성 홍보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동의하셔야 최종 추모식 진행자로 결정됩니다.

(4) 진행 주체

- 진행 : 여성미래 프리카레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애뜻한 추모식> 함께 기획하고 체험할 분을 모십니다

모집기간: 2025년 8월 31일(일) 자정
신청방법: 구글폼 (QR코드 스캔)



마음 깊은 추모와 애도하는 장례 문화를 지향하는
<애뜻한 추모식>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모십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스스로 기획하는
<애뜻한 추모식>을 더불어 준비하고 주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모집 대상

- 아직 못다 한 애도와 추모가 필요한 분
- 자신의 사견 장례식을 해보고 싶으신 분

지원 내용

- <애뜻한 추모식> 기획모임 2~3회
- 9월 26일 오후 6~9시 당일 행사 함께 진행

- 주관 든든한 프리카레
- 후원 사무금융우부투자재단,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 문의 02-761-1800 woman@womanfuture.or.kr

(본 프로그램은 추모식을 경험하고픈 여러분들에게 준비 과정부터 공개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추모식 준비를 위한 워크샵(1)

2025 프리카레 추모식 워크샵

작고
아름다운
이별

첫만남, 존엄과 치유를 위한
애도의례 준비하기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전승욱 영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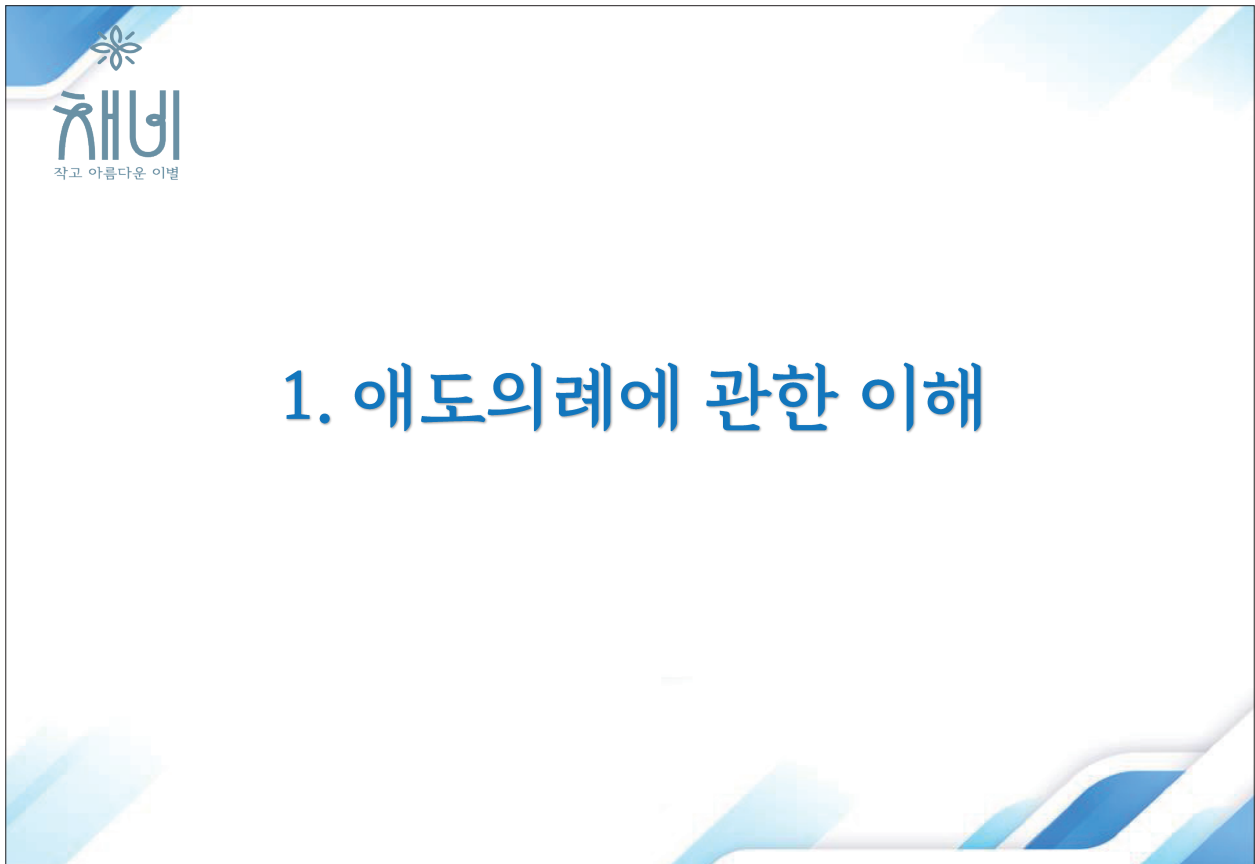


오늘
기분이
어때요?



● 주객이 전도된 장례식

- 닌른삿원런 존안즐 일렌슌율 낀빈윤 원헨龍
- 잣월 빈윤궂원런 원츄달 전뵘윤 뵘궂율
- 할헨, 빌할원런 齧션필 씌던 윤런
- 설눓 슌뵘 닌장은 단 슬궂 씌은닐 윈젗
- 궂을율 안든앤 읍웁궂?
- 율^궂율 필 궂뤘 뵘궂 핫궂궂 필 뵘궂율원런 궂산뵘
- 궂궂궂던 힐궂궂던 궂은 읍뵘원런 율궂 궂안齧닌.



● 장례 의례의 기능

● 장례식의 중심 기능

- 죽음을 공식화, 수용의 단계 조력
- 상실을 공유하는 시간
- 기억의 재구성 및 공유 나눔. (알렌 콜)

● 장례&애도 의례의 기능

● 개인별/공동체별로 잘 맞추어진 장례의례

- 비탄과 애도의 과정을 잘 겪도록 조력
- 추모사로 고인의 삶을 되새겨보고,
-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 사진, 의류, 악기 등을 사용하여
-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며 좋은 애도의 시간 공유

● 국내 다양한 장례의례



2025 채비플랜강좌

10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의례의 상실 치유효과

1. 슬픔 표현(심리적 치유)

안정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애도하고, 울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2. 고인을 기리기(기억으로 고인의 존재 확인)

고인과 함께했던 추억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되짚어보며, 살아온 삶을 축하.

3. 커뮤니티 지원(공동체 결속 확인)

지지하고 위로를 주는 커뮤니티 모이기. 서로 애도하고 위로하며 유대감 강화.

2025 채비플랜강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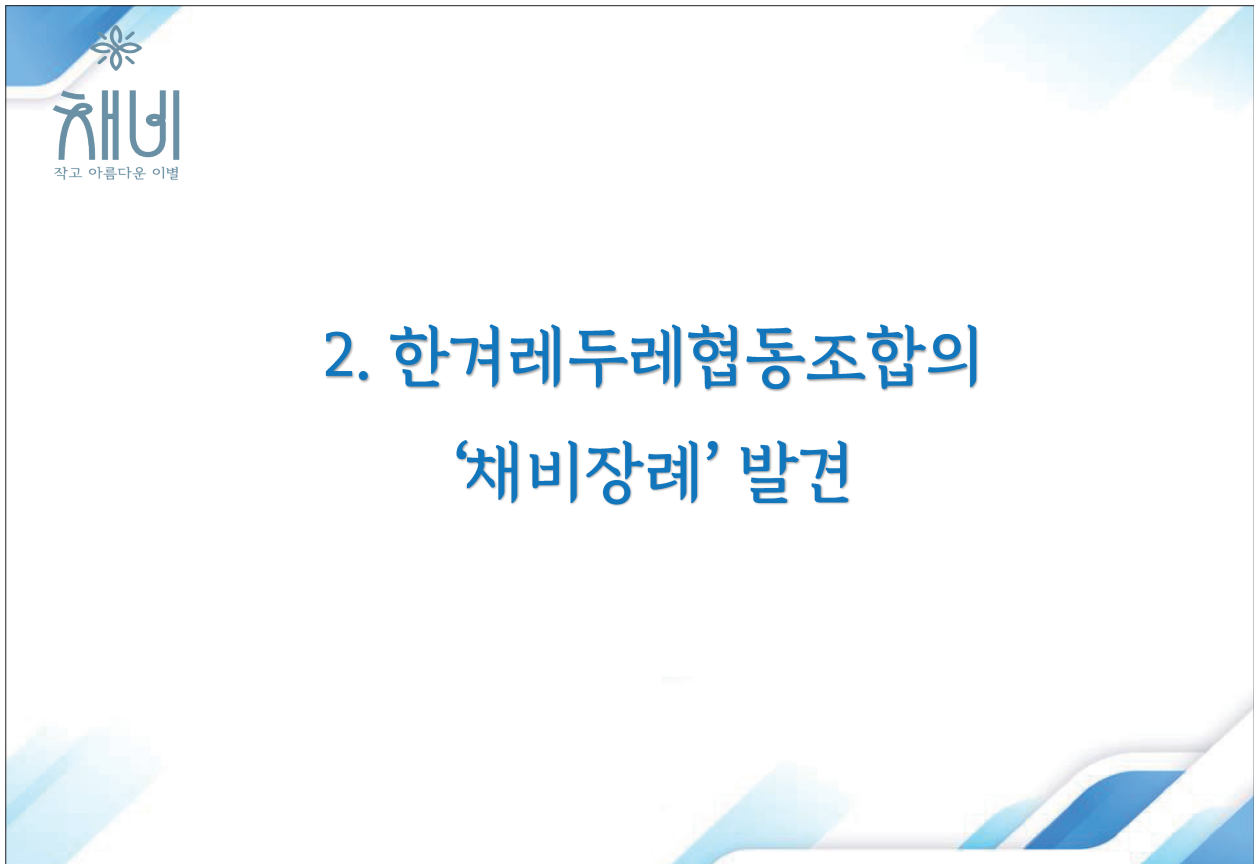
한겨레두레협동조합

4. 전환점 표시(죽음의 수용)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도록 돕기.
공식적인 이별의 의식은 유족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

5. 문화적, 영적 충족(삶과 죽음의 영적의미)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을 포함하여, 영적인 위안과 연속성의 감각을 제공.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도움.



● 작은 장례의 발견

- 인구변화에 따른 전통 가족의 변화
- 높은 장례비용의 부담감 증가
- 개인화된 애도욕구 증가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절한 장례필요
- 돌봄의 영역에서 죽음과정 재조명

❖ 장례문화 인식개선 사업



❖ 정기 채비플랜 강좌



❖ 그림책읽기 모임



❖ 죽음 치유 명상 모임



2024 돌봄 종사인을 위한 채비강의

서울시 노원구 함께걸음의료사협 돌봄봉사 활동가강좌



2025-02 채비플랜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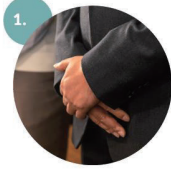
3. 작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장례, **채비** -애도의례의 구성-

● 채비장례 추모식, 애도와 기억의 재구성

- 기억
- 생애사, 유품, 플레이리스트, 사진, 영상
- 애도
- 작별인사, 추모사, 추모송, 허깅, 공연

● 채비장례 추모식, 애도와 기억의 재구성

채비 추모식 주요순서



1. 추모 목념
추모식을 시작하며 목념



2. 약력소개
상주가 고인의 삶을 간략히 소개



3. 추도사
고인과 가까웠던 지인이 추도사 낭독



4. 추모영상
고인과 유족의 사진으로 추모영상 제작, 상영



5. 추모편지
고인 가족의 애도 편지 낭독



6. 메모리얼 포스트
고인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작성



7. 헌화
가족이 헌화 후 조문객이 헌화



8. 유족인사
상주 또는 유족 대표가 감사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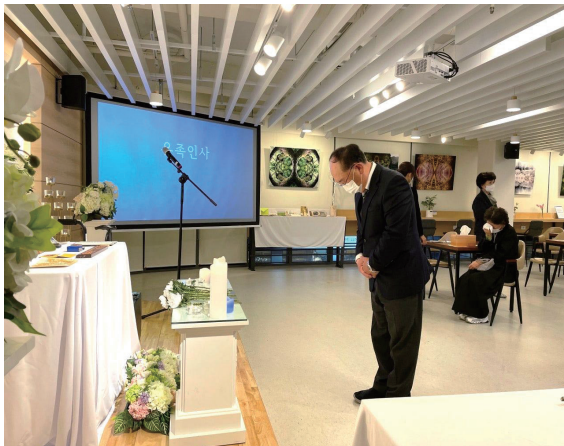


메모리얼 테이블
추억이 깃든 작은 소품



추모송/공연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공연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공간구성, 전용공간(1)



서울시내 총무로 공간채비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공간구성, 공유공간(2)

마을카페(위스테인별내 아파트)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공간구성, 공간요소(1)



빈소(추모단, 영정, 이야기)



유품(추억, 이야기,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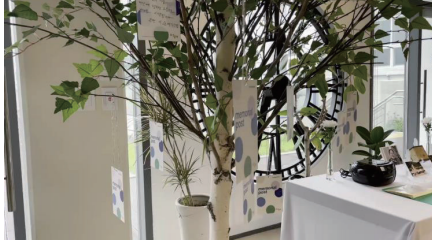


빈소(헌화)



놀이공간(애도행위의 장, 공동체)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공간구성, 공간요소(2)



메모리얼포스트(애도, 이야기)



출입구(손님맞이, 상가 알림)



접객(음식나눔, 애도, 이야기)



이야기공간(위로, 애도)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구성, 예술적요소 (1)

놀이공간(애도행위의 장, 공동체)

빈상여놀이, 진도 다시래기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오브제(1)



조문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의 말을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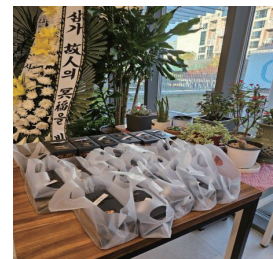
메모리얼포스트



방명록



딸들의 상주리본



답례품 (특히 제주)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오브제(2)



추모단의 오브제(헌화 꽃, 십자가, 초)



추모단의 오브제(제단장식 꽃, **행복한 표정의 영정사진**)

● 작은 장례를 위한 이야기 구성(2), 유품의 추억들



2025-02 채비플랜강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작은 장례를 위한 이야기 구성(3), 작별인사



2025-02 채비플랜강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4. 채비, 작은 추모식 장례 준비 실제

채비추모장례 서비스

추모장례식 기획과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장례지도사가 이송/안치/입관/발인에 이르는 현장 상조서비스를 지원하고, 더불어 채비플래너가 추모식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쉽게 안내합니다.

상조 서비스

- 24시간 장례 접수
- 이송, 안치, 예약, 입관, 발인
- 관, 수의, 차량

추모식 서비스

- 추모식 준비 가이드
- 추모식장 세팅
- 추모식 진행

※ 장례식장 외의 공간에서 추모식 진행 시, 유해 안치는 장례지도사가 유족들이 원하는 지역내 장례식장 안치실로 안내해드립니다.





채비 1일장 1일 빈소와 추모식

장 소 충무로 공간채비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 상가 2층)

추모식 유족이 선호하는 시각에 60~90분 진행

조 문 하루 중 8시간 기준, 조정 가능

인원수 방문 최대인원 90명 이하(평균 50명) ☆ 필수체크

첫째 날

- 장례접수 (1588-9517)
- 이송 및 장례식장 안치
- 일정확정 및 시설예약
- 채비플래너 통화
- 추모식 점검 및 확정
- 온라인 부고발송

※장례지도사 담당

둘째 날

- 추모식 공간 방문
- 조문(1일 빈소)
- 추모식
- 귀가

※채비플래너 담당

셋째 날

- 장례식장 입관실
- 입관예식
- 발인
- 화장
- 납골 안치

※장례지도사 담당

채비 무빈소장 추모식

장 소 충무로 공간채비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 상가 2층)

조 문 없음 (경우에 따라 잠깐의 조문을 받기도 함)

추모식 유족이 선호하는 시각에 60~90분 진행

인원수 동시참석 최대인원 30명 내외 ☆ 필수체크

첫째 날

- 장례접수 (1588-9517)
- 이송 및 장례식장 안치
- 일정확정 및 시설예약
- 채비플래너 통화
- 추모식 점검 및 확정
- 온라인 부고발송

※장례지도사 담당

둘째 날

- 추모식 공간 방문
- 추모식
- 귀가

※채비플래너 담당

셋째 날

- 장례식장 입관실
- 입관예식
- 발인
- 화장
- 납골 안치

※장례지도사 담당

추모식 준비사항

1	추모영상 제작용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별 정리 40여장 (실제 사용 34장) 가능하면 고해상도 영정사진 1장 포함 늦어도 추모식 2일 전까지 전달 bauer2936@gmail.com or 카톡 전달
2	추모영상 삽입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을 설명하는 4개의 문장 마지막 인사 1~2문장
3	조문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사 A4 절반 분량 대표(영정)사진 1장 고인 생년 월일 유족 명단
4	메모리얼 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과 일상 추억이 깃든 유품 10점 이상 인화된 사진
5	영정사진 제작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인 때 영정 필요하면 액자사진 ※안치시 장례식장에 제작요청

6	추모송 (음악, 노래, 플레이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이 좋아하던, 불러주고 싶은 노래
7	온라인부고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일정&장소, 유족명단, 영정사진, 공지 ※채비플래너와 카톡으로 피드백 진행
8	온라인 메타버스 추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사, 생전사진, 작별편지, 장례의향서 등
9	헌화용 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화20송이 기본제공 ※구매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꽃 준비가능
10	따뜻한 작별인사 (추모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 없이, 현장에서, 누구라도 참여 온라인 참여 가능, 모든 형태의 작별인사 공유
11	격식 있는 추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을 갖추어 고인의 삶을 찬미
12	종교예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상의하여 순서에 넣음
1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의함, 주차권, 상복, 유족식사 등 필요사항 미리 논의

장례 이후

채비는 장례 이후 유족의 위로와 고인의 추모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 추모식 자료전달

추모식 및 장례에 관한 사진/영상을 정리하여 1주일 후에 유족께 전해드립니다. 이를 위해 추모식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만족도 설문&후기

더 좋은 장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유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솔직한 소감은 부족함을 메우고 좋은 점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장례 후 추모 행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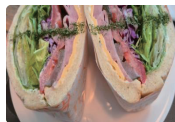
장례 이후, 49재, 1주기 등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실 때 필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과 안내

채비추모식장에서는 유족이 자유롭게 다과와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인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먹고, 조문객을 대접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 직접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나 추가적인 음식 준비한 필요할 경우에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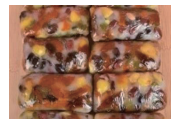
- 전문업체에 위탁하므로 시중 구매 평균가보다 조금 비쌀 수 있음
- 여러 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므로 포장이나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나 용량과 품질은 거의 동일
- 당일 현장 추가 주문 어려움, 여유 있는 수량 주문필요



- 샌드위치 1개 (2쪽)
- 최소수량 30개
- 쪽당 6천원



- 과일 컵/과일도시락
- 최소수량 30개
- 컵당 6천원
- 도시락당 1만원



- 떡 (날개포장)
- 최소수량 반말 (약50여개)
- 개당 2,000원



- 큰 쿠키
- 최소수량 (약50여개)
- 개당 2,000원

※제공 가격은 재료비에 따라 약간 변동 (부가세 포함)



음료

기본적인 음료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 음료 반입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음료를 직접 준비하셔도 됩니다.

- ✿ 커피 아메리카노 (HOT/ICE) 2,000원/잔
 믹스커피 무료제공
- ✿ 차 (티백) 녹차 / 둥글레 / 허브 무료제공
- ✿ 기타 음료 생수 / 주스 / 와인
 ※주문한 상품에 따라 비용 책정 (부가세 포함)

친환경 장례식

채비추모장례는 4가지 가치를 지향합니다.
성평등, 낮은 경제적 장벽, 사회적연대, 그리고 **친환경가치**입니다.
채비추모장례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 다회용 용기 사용 다회용컵 씻어서 재사용
 개인용 스텐 접시 제공
- ✿ 샌드위치 재활용 포장 사용
- ✿ 과일컵 포장 용기 분리수거
- ✿ 일회용 포장 도시락을 드시는 경우, 분리수거 필수





추모, 애도 용품

채비는 개인적 추모를 위한 아름다운 용품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웰다잉 학습 툴을 제공합니다.

※ 채비함



유품정리를 통해 임종을 미리 준비하거나, 임종 후 유품을 보관

조합원 3만원,
비조합원 5만원

※ 온라인추모관



메타버스 방식으로 제작된 온라인 추모관, 기록정리 및 온라인 애도 가능, 국내최고

조합원 무료

※ 그림책



죽음에 관한 그림책으로 상실을 치유, 공동체 암기를 통해서 죽음에 관한 공동 학습

조합원 10% 할인

※이용 및 구입은 담당자에게 문의



웰엔딩 교재 및 강좌

채비는 개인적 추모를 위한 아름다운 용품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웰엔딩 교재 및 강좌를 제공합니다.

※ 채비노트



쉽고 간결하게 제작되었지만, 웰다잉 학습을 위한 거의 모든 주제 포함, 혼자서도 가능

조합원 6천원
비조합원 1만원

※ 채비 강좌



웰다잉과 작은추모식 준비과정을 모두 포함한 강좌. 죽음 교양 인문학, 장례준비 실용 강좌, 웰엔딩을 위한 소모임

과정별 별도 비용

※ 모의 추모식



실제 작은 추모장례식과 동일한 진행, 추모식 준비 실제, 추모식을 통한 인생 정리 액션 학습

과정별 별도 비용

※이용 및 구입은 담당자에게 문의

■ 추모식준비 체크리스트

순서	담당자	준비 할 내용	내용설명
순서	담당자	준비 할 내용	내용설명
대표헌화		깃 헌화, 유족대표	
고인소개		생애사 작성 및 낭독	
추모영상		사진 40여장 정리	
추모편지		작별인사를 듣고 싶은 사람	
종교의례		-종교인 진행자 명단 -구성 항목	
유품소개		추억있는 생활소품 목록	
추모송 (공연)		좋아하는 노래	
메모리얼 포스트			
전체헌화		꽃 종류	
대표인사		유족 대표를 통한 전언	
추가 할 사항			

- 1 -



5. 채비, 작은 추모식 장례 실제 사례

❖ 사례1. 품위 있으나 소박한, 기억할 유품이 풍성한...

-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기억하는 많은 유품
- 출장 가방, 일기장, 빗 바랜 자격증, 낡은 구두
-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의 사랑, 책임감을 알려줌

❖ 사례2, 아들의 의지, 손녀의 기획, 할머니 추모식

- 추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두려워하는 형제를 설득
- 사랑받던 손녀가 손수 준비하는 할머니의 추모식
-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추모가 있는 장례식

❖ 기억이라는 유산, 우연히 발견한 어머니의 작별편지



2022 채비플랜

54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사례3. 마을이 모여서 큰 위로의 시간

- 1인 가구, 독거인의 장례를 외롭지 않게
- 마을 이웃의 십시일반
-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 살던 곳에서 장례식, 수목장

2025-02 채비플랜강의

55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핏줄을 넘어선 애도 가족

- ❖ 사례4, 나의 친할아버지인 것처럼
 - 쪽방촌의 외로운 할아버지
 - 손녀와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지내다
 - 마지막까지도 돌보는 사회적 가족

❖ 사례5, 너무나 친밀했던 친구의 장례식

- 가족조차 직면하기 힘들었던 죽음
- 그를 알던 모든 친구들의 불안함
- 추모의 마당에 모두 통곡하고, 가족도 기대었던

6. 공동체로 살고 공동체로 죽는다.

작은 장례
마을 장례는
이벤트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다.



공동체의 최종단계, 임종(臨終)

살아있는 순간부터
애도를 넉넉히 채우는 비법

- 고맙습니다.
- 미안합니다.
- 사랑합니다.

죽음까지 돌보는 의지
공동체의 힘

3) 추모식 준비를 위한 워크샵(2)

2025 프리카레 추모식 워크# 2

작고 아름다운 이별

채비

두번째 만남
존엄과 치유를 위한

아도의례 **구체적** 준비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프리카레 애도의례 준비

-故강채규님 딸, 강희영님이 준비하는 1주기-

● 채비장례 추모식, 애도와 기억의 재구성

- 기억
- 생애사, 유품, 플레이리스트, 사진, 영상
- 애도
- 작별인사, 추모사, 추모송, 허깅, 공연

1. 추모식 **순서담당자**

- ① 대표헌화
- ② 묵념
- ③ 고인소개(생애사)
- ④ 추모사(추도사)
- ⑤ 작별인사

1. 추모식 **순서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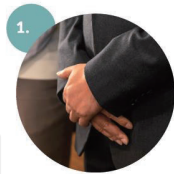
- ⑥ 추모공연(추모송)
- ⑦ 메모리얼테이블
- ⑧ 함께헌화
- ⑨ 대표인사

1. 추모식 실무담당자

- a. 채비플래너(총감독) 기획 및 점검
- b. 예식 진행자
- c. 조문 안내자: 헌화, 부의, 방명록, 외부연락, 유족과 손님연결, 손님음식 안내 등
- d. 공간 관리자: 빈소 공간 셋팅, 영상/음향 셋팅, 최종정리, 유지관리 등
- e. 현장기록자: 사진, 영상

● 채비장례 추모식, 애도와 기억의 재구성

채비 추모식 주요순서



1. 추모 목념
추모식을 시작하며 목념



2. 약력소개
상주가 고인의 삶을 간략히 소개



3. 추도사
고인과 가까웠던 지인이 추도사 낭독



4. 추모영상
고인과 유족의 사진으로 추모영상 제작, 상영



5. 추모편지
고인 가족의 애도 편지 낭독



6. 메모리얼 포스트
고인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작성



7. 헌화
가족이 헌화 후 조문객이 헌화



8. 유족인사
상주 또는 유족 대표가 감사 인사



메모리얼 테이블
추억이 깃든 작은 소품



추모송/공연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공연

2. 추모 공간 꾸미기

- ① 손님 맞이(공간) 조문보, 방명록,
(상호)부조금 접수, 조등(funeral lights)
- ② 제단, 헌화단, 영정
- ③ 위로와 친교 공간(대화, 음식 나눔 등)
- ④ 공연공간(노래, 춤, 이야기 마당 등)
- ⑤ 휴식공간 또는 기타

3. 추모공연

- ① 노래
- ② 이야기
- ③ 낭독(기도, 연도, 독경 등)
- ④ 영상
- ⑤ 플레이리스트(BGM음악)
- ⑥ 무용 등

4. 추모식 오브제

- ① 조문보
- ② 유품
- ③ 유골함
- ④ 메모리얼포스트 & 나무(걸이)
- ⑤ 꽃 장식
- ⑥ 초와 조명

4. 추모식 오브제

- ⑦ 영상플레이 모니터(태블릿)
- ⑧ 종교용품
- ⑨ 사진전시(가랜드, 액자)
- ⑩ 부의함
- ⑪ 조등
- ⑫ 디지털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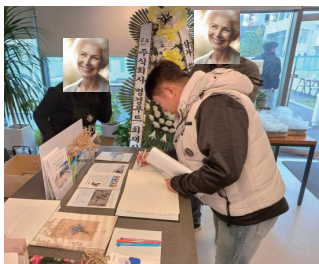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오브제(1)



조문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의 말을 쓰기)



메모리얼포스트



방명록



딸들의 상주리본



답례품 (특히 제주)

● 작은 장례를 위한 애도 오브제(2)



추모단의 오브제(헌화 꽃, 십자가, 초)



추모단의 오브제(제단장식 꽃, **행복한 표정의 영정사진**)

● 작은 장례를 위한 이야기 구성(2), 유품의 추억들



2025-02 채비플랜강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준비점검항목

● 추모식 준비사항

- ① 조문보(생애사, 사진, 고인정보, 유족명단(또는 공동체명단))
- ② 추모영상(정리된 사진, 편집용 추모 문구)
- ③ 유품(10점 이상, 모든 소품 및 현상된 사진 등)
- ④ 영정사진 준비(실물 or 디지털액자)
- ⑤ 헌화용 꽃(국화 or 고인이 좋아하시던 꽃)
- ⑥ 순서에 따른 공연(추모송, 애도퍼포먼스, 시낭송 등)

● 추모식 준비사항

- ⑦ 종교예식 또는 종교인 순서
- ⑧ 음식과 음료
- ⑨ 영상과 음향장비
- ⑩ 추모와 애도 오브제
- ⑪ 공간 장식용 꽃

추모식 준비사항

1	추모영상 제작용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별 정리 40여장 (실제 사용 34장) 가능하면 고해상도 영정사진 1장 포함 늦어도 추모식 2일 전까지 전달 bauer2936@gmail.com or 카톡 전달
2	추모영상 삽입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을 설명하는 4개의 문장 마지막 인사 1~2문장
3	조문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사 A4 절반 분량 대표(영정)사진 1장 고인 생년 월일 유족 명단
4	메모리얼 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과 일상 추억이 깃든 유품 10점 이상 인화된 사진
5	영정사진(실물 or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인 때 영정 필요하면 액자사진 ※안치시 장례식장에 제작요청

6	추모송 (음악, 노래, 플레이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이 좋아하던, 불러주고 싶은 노래
7	온라인부고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일정&장소, 유족명단, 영정사진, 공지 ※채비플래너와 카톡으로 피드백 진행
8	온라인 메타버스 추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사, 생전사진, 작별편지, 장례의향서 등
9	헌화용 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화20송이 기본제공 ※구매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꽃 준비가능
10	따뜻한 작별인사 (추모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 없이, 현장에서, 누구라도 참여 온라인 참여 가능, 모든 형태의 작별인사 공유
11	추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을 갖추어 고인의 삶을 찬미
12	종교예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상의하여 순서에 넣음
1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의함, 주차권, 상복, 유족식사 등 필요사항 미리 논의

공동체의 최종단계, 임종(臨終)

살아있는 순간부터
애도를 넉넉히 채우는 비법

- 고맙습니다.
- 미안합니다.
- 사랑합니다.

죽음까지 돌보는 의지
공동체의 힘

작고
아름다
이별
함
채비

4) 애틀한 추모식 조문보

: 故 강채규님 조문보(1주기 추모식)

‘늘 사랑으로 자리를 지키셨던’
故강채규님 조문보



1949년 03월 02일 ~ 2024년 10월 18일

사랑하는 이를 소개합니다.



경남 의령군 유곡면의 작은 마을에서 10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태어난 직후 장티푸스를 앓아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늦어진 출생신고로 동생들과 같은 반에서 학교를 다녔다.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반장을 맡으며 책임감과 리더십을 일찍 배웠다.

중학교 시절부터 마산에서 자취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챙겨 준 보리 한 보따리와 김치, 텃밭 채소로 끼니를 이었다. 고등학교 무렵에는 입주 과외로 학업과 생활을 병행했다. 그때 가르친 학생은 훗날 그의 처조카가 되었고, 그 학생의 막내 고모와 10년 뒤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서울 유학을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했다. 형님(처형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이후 주변의 요청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사 운영을 도우며 전기·조명 일을 시작했다. 그 길을 48년 동안 성실히 이어 오며 평생을 전기조명업자로 지역의 신뢰를 쌓았고 가게를 지켜냈다.

열 남매 중 특히 어머니가 아꼈던 막내아들, 누이동생들에게는 든든한 오빠이자 동생이었다. 그는 딸 셋, 딸만 셋이었고, 그래서 더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했다. 정 많고 세심한



성품으로 세상일에 늘 관심을 기울였고, 그의 ‘오지랖’은 결국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중장년 이후에는 라이온스클럽에 깊이 헌신했다. 병상에서도 운영을 걱정할 만큼 애정을 기울였고, 그 발걸음은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장례식장에는 친지 못지않게 라이온스 회원들이 찾아와 그의 삶을 기억했다. 아내의 전도로 신앙을 품고 교회에 성실히 섬겼으며, 장로가 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도 서리집사로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다. 마지막까지 가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는 검소했고, 자신을 낮추어 가족과 이웃을 돌봤다. 여행을 사랑했으나 생업을 지켜야 했기에 먼 길을 자주 떠나지 못했다. 대신 세계테마기행 프로그램으로 낯선 풍경을 가슴에 담았다. 암병원을 오가던 길에도 자연과 사회적 약자, 동물을 염려했다.

추모식을 준비하며 발견한 그의 노트와 일기에서 우리는 몰랐던 ‘그’를 새로 만났다.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따뜻하고 자상했고, 검소하고 부지런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생을 다했다. 이제 그는 천국에서 마음껏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꽃과 나무, 소나무 그늘과 동물들 사이에서. 남겨진 우리는 그가 남긴 온기를 품어 오늘을 산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채규님, 당신은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 추모식 순서 ※

- | | |
|----------|------------|
| 1 대표헌화 | 7 메모리얼포스트 |
| 2 함께묵념 | 8 메모리얼 테이블 |
| 3 고인소개 | 9 추모송 |
| 4 추모영상 | 10 함께헌화 |
| 5 추도사 | 11 대표인사 |
| 6 그리운 인사 | |

기억을 나누며 위로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추모식 : 덜 소비하고 더 애뜻한 <아버지 1주기 추모식>
- 초대자 : 강희영 (故강채규님의 딸)
- 준비위원 : 여성미래 프리카레,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
- 음식준비 : (주)엘마드레
- 영상기록 : 지구인스튜디오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 문의 : 02-761-1800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공간채비 2층, 사무국 B113호

*가입상담 : 1800-9517 *장례접수 : 1588-9517

3. 1인 생활자를 위한 임종 준비(2) : <임종 코디네이터>

1) 임종 코디네이터 역할 찾기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있으나, 임종 전 돌봄은 사각지대에 있고, 임종 후 장례문화는 상업화· 획일화 되어 있으며 유족의 상실 치유나 공동체적 애도의 기능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여성미래가 주최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애도할 수 있을까’를 묻는 집담회(2025.7.22.)를 통해 임종은 돌봄의 마지막 순간이며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병원이든 집이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지만, 일상적인 돌봄 제공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
- ‘1기 생활자도 재택임종이 가능한 환경’이 임종관리의 중요한 역할임을 인지하고 이 역할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고 제안하고자 함.
- 202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통증 조절’, ‘불필요한 연명 중단’, ‘자기 결정권 존중’이 언급되었음.
- 따라서,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통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만의 환자자주권리법과 영국의 의사결정능력법과 같은 제도의 마련, 생애 말기 의사결정에서의 환자·가족·의료진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2) <1인 생활자를 위한 ‘임종 코디네이터’>의 역할 정의

- 호스피스 역할
 - 연명의료결정법(2024)의 다른 한 골자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인 치료를 제공한다(제2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호스피스 대상 환

자 혹은 지정 대리인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함께 호스피스 대상 환자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 환자의 생애 말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 환자·가족·의료진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도움 제공

(대만사례)

-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체계 중 하나는 대만국립대학병원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의 윤리센터를 들 수 있는데, 센터의 구성원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 의사 및 그외 20여 명의 상근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병원 내에 호스피스 병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직접 제공하고, 그외 상근직원들은 상담 업무, 연구 업무, 장기이식 이행 전의 윤리 검토, 윤리교육, 호스피스·완화疫료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윤리센터에서는 임상 윤리 위원회(호스피스·완화疫료의 임상적 측면 담당), 정책 교육 위원회, 연구 윤리 위원회(호스피스·완화疫료의 학술적 측면 담당), 윤리 상담 위원회가 존재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환자의 연명의료 등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의 의향이 서로 상반될 경우, 윤리 상담 위원회에서 가족-환자-의료진 간 상담 및 교육을 통해 환자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서로 다른 의견 및 주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보사연, 2025)

-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다른 사례는 가오슝 보훈병원(Kaohsiung Veterans General Hospital)이 있는데, 가오슝 보훈병원의 '승덕' 호스피스 병동은 다학제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종교인, 음악·미술·동물 치료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이 완화疫료뿐 아니라 음악·미술치료, 버킷리스트 실현하기, 종교행사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보사연,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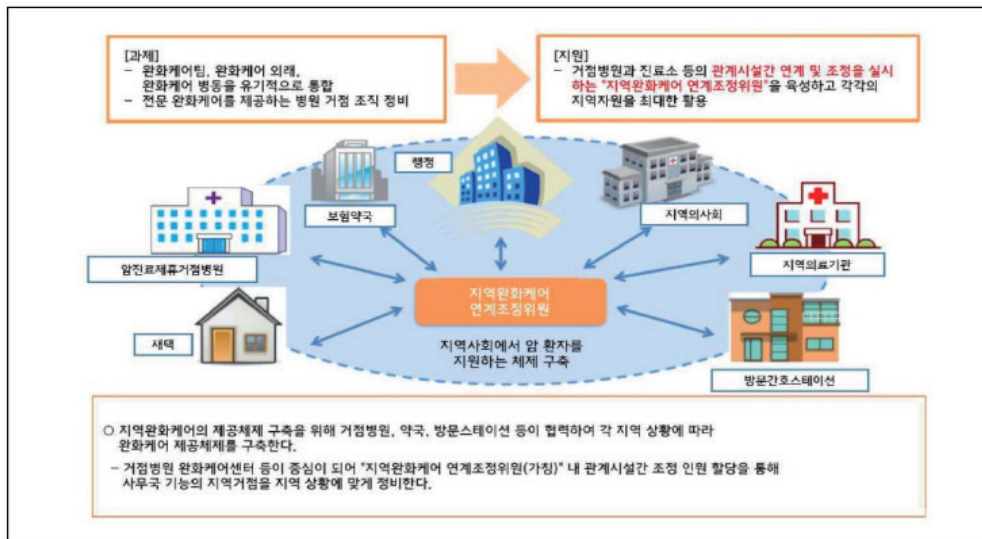
(네덜란드 사례)

- 네덜란드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완화疫료 및 생애 말기 돌봄서비스 (care in the community)는 일반의(GP)의 역할이며, 네덜란드의 모든 일반의는 공식적인 완화疫료 교육을 받으며, 대부분의 완화疫료가 1차진료에서 이뤄진다(Abarshi et al., 2011, as cited in Coyle et al., 2021, p.52). 네덜란드에서는 가정에서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임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Evans et al., 2014, as cited in Coyle et al., 2021, p.52), 이로 인해 환자의 마지막 1년 동안 일반의의 가정방문 횟수가 의원 방문 횟수보다 두 배 높다(Kroneman et al., 2016, as cited in Coyle et al., 2021, p.52). 또한 일반의가 완화疫료를 주도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전문의에게 의뢰한다(Koper, 2018, as cited in Coyle et al., 2021, p.52).

(일본 사례)

일본에서는 2025년 급증할 의료·요양 수요를 대비하여 의료기능별 2025년의 의료 수요와 필요 병상 추계를 포함한 지역의료 구상등을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정리하는 '2025 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포괄돌봄시스템과 재가 돌봄 중심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상호연계와 시설·의료에서의 지역 및 요양 중심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 상담 지원, 심리, 영양, 치위생, 물리치료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고 입원형, 자문형, 재택방문형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료기관, 의사회 등 지역 관계 기관 간 연계 및 조정을 위한 '지역완화케어연계조정위원회(가칭)'8)을 양성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그림 2-4)도 논의 중이다(오주연 외, 2020, pp.19-20).

[그림 2-4] 일본의 지역완화케어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영국사례)

<표 2-9> 영국의 제공 장소에 따른 생애 말기 돌봄(End of life care)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재가 (Care at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의료 의사(GP)가 지역사회 간호사(communitary nurses)에게 가정 간호 돌봄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짐. - 지역사회 완화 돌봄 간호사(communitary palliative care nurses)의 전문적인 돌봄 및 기타 전문가들의 돌봄 제공 1) 직접 간호(hands-on nursing) 또는 개별화된 돌봄 2) 통증 및 증상 관리 조언 3)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도움 - 가족, 친척, 보호자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s and palliative care) 서비스 제공 - 낮돌봄 호스피스 방문 가능
요양시설 (Care in a care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씻기, 옷 입기, 식사 등 가정과 같은 일상적인 돌봄 제공 - 전문 간호 돌봄(skilled nursing care) 제공: 장애, 심각한 장기간의 질환, 활동 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함 - 자원봉사단체, 개인(private individuals), 사기업, 지방의회(local council)에서 운영 - 지역병원 완화 돌봄팀, 지역 호스피스팀, 1차 의료 의사(GP), 지역사회 간호사 등의 돌봄 제공
병원 (Care in 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동 의사, 간호사, 보건의로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 전문 완화의료 케어팀(specialist palliative care team) 1) 병원 직원들에게 통증과 증상 관리에 대한 지도 2) 퇴원 계획, 호스피스, 지역병원, 케어홈으로 전원 등에 대한 지원 제공 - 치료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의 완화 및 생애 말기 돌봄은 가능한 한 편안한 생애 말기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호스피스기관 (Hospice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케어홈, 병원(입원), 낮돌봄 호스피스에서 제공 - 환자의 의료적, 정서적, 사회적, 실질적, 심리적, 영적 필요와 가족들의 필요까지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함(전인적 돌봄): 사별 이후 환자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상담사, 자원봉사자 등이 호스피스팀을 구성 - 일반적으로 통증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의료적·간호적 돌봄 제공: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완요법, 재활, 일시적 위탁(respite care), 사별 돌봄, 영적·심리적 지원 등 호스피스마다 상이함.

(3) <1인 생활자를 위한 ‘임종 코디네이터’> 역할에 따른 직무

① 생전 정리 서비스 제공

- (강동구 사례) 60대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으로 ‘사전 장례 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웰다잉 교육을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하고 의료적 위급사항 발생시 연락할 가족이나 지인을 확보하도록 하며, 유언장 작성 및 재산 정리를 지원하고 있음
- 웰다잉 관련으로 1인 생활자의 경우 사전 정리를 위한 것으로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 예상됨. 생전 정리에 필요한 심리상담과 재산 정리, 사후 정리를 위임할 위임자 선정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유언장 작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환자의 임종 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방식 판단

-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구분	대상 질환	주요 서비스
입원형 호스피스	말기 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계획 수립 및 상담 - 통증 및 신체 증상 완화 - 임종 관리 - 환자와 가족 교육 -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사별 가족 돌봄서비스 - 자원 연계
가정형 호스피스	말기 암·후천성 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만성 호흡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계획 수립 및 상담 - 사별 가족 돌봄서비스 - 장비 대여/연계 서비스 - 환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 - 주야간 상담 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자문형 호스피스	말기 암·후천성 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만성 호흡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증상 관리 자문 -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 돌봄 계획 수립 및 상담 - 호스피스 입원 연계(말기 암 환자 경우) - 재가 서비스 연계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자원 연계/경제적 지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운영 중)	진단 병명이나 질병 단계에 관계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질환 (만 24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계획 수립 및 상담 - 퇴원 지원 - 신체적 돌봄 -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 교육 - 사회적, 심리적, 영적 돌봄 - 사별 가족 돌봄 - 임종 돌봄

출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안내", 중앙호스피스센터, n.d., <https://hospice.go.kr:8444/?menu=1>

③ 환자의 임종 후, 장례 지원 연계

- 장례지도사의 역할 중 일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상담 : 유족상담/장례절차 상담 - 장사시설관리 : 장사시설/장례식장 실무 - 위생관리 : 시신의 위생관리 - 염습 및 장법 : 염습, 발인 및 운구 - 장례학 : 상장제의례 이해/종사자 직업윤리 - 장사법규 : 장사관련 법규 안내 - 장사행정 : 장사행정 절차 안내

- 2024년 2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 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함. 무연고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장례 지원

00시(군, 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시장등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군·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등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 가. 미성년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등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시장등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등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시장등에게 장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등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 시장등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

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환자의 임종 전·후 의사소통을 위한 코디네이터

- 임종을 전·후로 연관된 코디네이터 영역으로는 사회복지학, 법학, 건강보험, 연명의료, 연명의료 실무, 의료계, 윤리학(종교) 등이 있을 수 있음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해 요양병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에 대해 대화를 꺼리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입원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3자 대리인으로 환자를 대신해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 필요함.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의사소통
- 생애 말기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족 및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 연결

(참고) 일본에서 시행 중인 '엔딩 서포트 사업'

- 65세 이상 중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예탁금 50만엔 이상을 낼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매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담당자가 6개월에 한 번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또한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전화·전기 해지, 채무 해결, 병원비 지불, 생활용품 정리, 행정관청 신고 등을 예탁금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독거노인 및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

⑤ 일상적 생애주기별 웰다잉 교육 운영

- 연명의료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담사 또는 강사
- 웰빙과 연결된 웰다잉 교육을 통해 일상적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 도움 제공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해와 작성 여부, 유산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 실질적인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좋은 죽음'에 대한 정답을 두지 않고, 열려있는 질문과 경청의 태도

2) <임종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제안

(1) 제안 배경

- 202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통증 조절’, ‘불필요한 연명 중단’, ‘자기 결정권 존중’이 언급되었다.
- 따라서,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통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만의 환자자주권리법과 영국의 의사결정능력법과 같은 자기결정권의 기반을 확립하는 제도의 마련, 생애 말기 의사 결정에서의 환자·가족·의료진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있으나, 1인 생활자의 임종 전 돌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임종은 돌봄의 마지막 순간이며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병원이든 집이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지만, 일상적인 돌봄 제공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고,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 임종 후 장례문화는 상업화· 획일화 되어 있어 유족 외에도 비가족 공동체나 동료들의 상실 치유나 공동체적 애도의 기능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2) 임종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 임종 전 스스로의 임종 준비를 도울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 및 실행
- 획일화된 장례 문화를 넘어 의미 있는 애도 의례 기획 및 진행 전문가 양성
- 소중한 사람의 상실 치유 및 공동체 돌봄과 애도 문화 확대
- 웰다잉 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임종과 애도 문화 확산

(3) 기대역할

① 생전 정리 서비스 제공

- 웰다잉 교육 진행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원, 의료적 위급사항 발생시 연락할 가족이나 지인을 확보하도록 하며, 유언장 작성 및 재산 정리를 지원한다.

- 임종 준비를 위한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생전 정리에 필요한 심리상담과 재산 정리, 사후 정리를 위임할 위임자 선정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유언장 작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환자의 임종 후, 장례 지원 연계 및 장례지도사의 역할 중 일부 제공

② 환자의 임종 전·후 의사소통을 위한 코디네이터

- 임종을 전·후로 연관된 코디네이터 영역으로는 사회복지학, 법학, 건강보험, 연명의료, 연명의료 실무, 의료계, 윤리학(종교) 등이 있을 수 있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해 요양병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호스피스 병원에서조차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에 대해 대화를 꺼리는 사례가 있고, 입원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3자 대리인으로 환자를 대신해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 생애 말기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족 및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야 한다.
-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있다면 이를 연결시켜야 한다.

(참고) 일본에서 시행 중인 ‘엔딩 서포트 사업’

65세 이상 중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예탁금 50만엔 이상을 낼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매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담당자가 6개월에 한 번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또한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전화·전기 해지, 채무 해결, 병원비 지불, 생활용품 정리, 행정관청 신고 등을 예탁금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독거노인 및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③ 생애주기별 웰다잉 교육 운영

- 연명의료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담사 또는 강사활동을 통해 일상적 교육을 진행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해와 작성 여부, 유산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 실질적인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좋은 죽음’에 대한 정답을 두지 않고, 열려있는 질문과 경청의 태도로 웰빙

과 연결된 웰다잉 교육을 통해 임종 전 일상적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도움을 제공한다.

(4) 교육 프로그램 : 총 35시간 과정

1> [이론과정] 5회차 20시간 과정

	과목	세부내용
1	죽음과 임종의 기본철학	○삶과 죽음의 의미, 임종을 맞이하는 자세와 철학 ○임종 징후 및 생리적 변화 이해 ○임종 전후 단계별 돌봄과 자원 연계 ○재택의료 및 재택임종의 장점과 한계
2	웰다잉 준비 제도와 법 이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해와 활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관련 법률·제도 학습 ○유언, 상속, 자산정리, 장례 관련 법적 절차와 실무
3	정서적 영적 지원	○환자 및 가족과의 침묵과 경청의 대화법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리 이해, 사별 감정의 이해 ○슬픔·분노·죄책감에 대한 공감과 대응 ○종교적·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례 연구
4	애도의례 기획 상실 치유	○애도의례(장례, 추모, 49재 등)의 구조와 의미 탐구 ○상실과 애도의 심리적 과정 및 치유방법 이해 ○애도 프로그램 및 사별 가족 지원 실무
5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과 통합돌봄	○공동체 기반 상실치유 및 상호지원 프로그램 기획 ○공동체 리더십과 갈등조정, 네트워크 구축 방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실천 사례 ○노인·장애인 등 돌봄필요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방법 ○민관 협력 및 지역 돌봄 모임의 운영 전략

2> [실습과정] 3회차 15시간 과정

	과목	세부내용
1	애도상담실습	○유족 상담의 기본 원칙과 윤리 ○감정·행동·신체 반응 관찰 및 공감적 소통 기법 ○다양한 상실 상황(자살, 사고, 어린이 등)별 상담 실습
2	웰다잉 모임 실습	○데스카페형 정기 웰다잉 모임 기획 운영 및 진행 ○다양한 대상별 맞춤 모임 및 강의 진행 실습
3	애도의례 기획실습	○장례·추모의례 기획 및 연출 실무 ○애도 및 추모 공간·프로그램 운영 실습 ○유족 및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의례 진행법

(5) 교육 및 운영 협력 네트워크

- 공동주관 : 지역 재택의료센터 / 호스피스 전문기관 / 평생교육원 등
- 협력 : 보건소, 지자체 복지과, 장례지도사협회, 종교기관 등
- 강사진 구성:
 - 가정의학과 / 완화의료 전문의
 - 간호사 (호스피스 경험자)
 -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전문가,
 - 사회복지사 / 장례문화 전문가
 - 재무상담사

별첨1) '임종과 죽음에 대한 관심을 묻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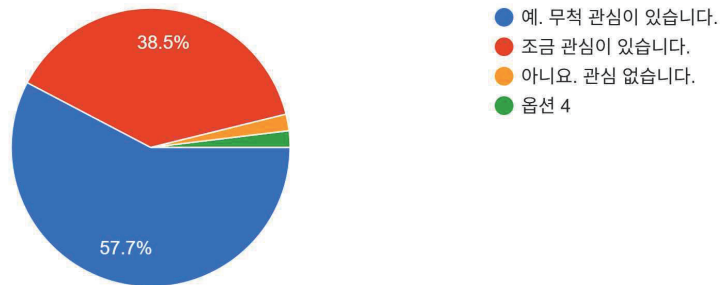
죽음과 임종에 대한 관심을 묻습니다.

1. 이런 모임을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무척 관심 있음(30명)

조금 관심 있음(20명)

응답 5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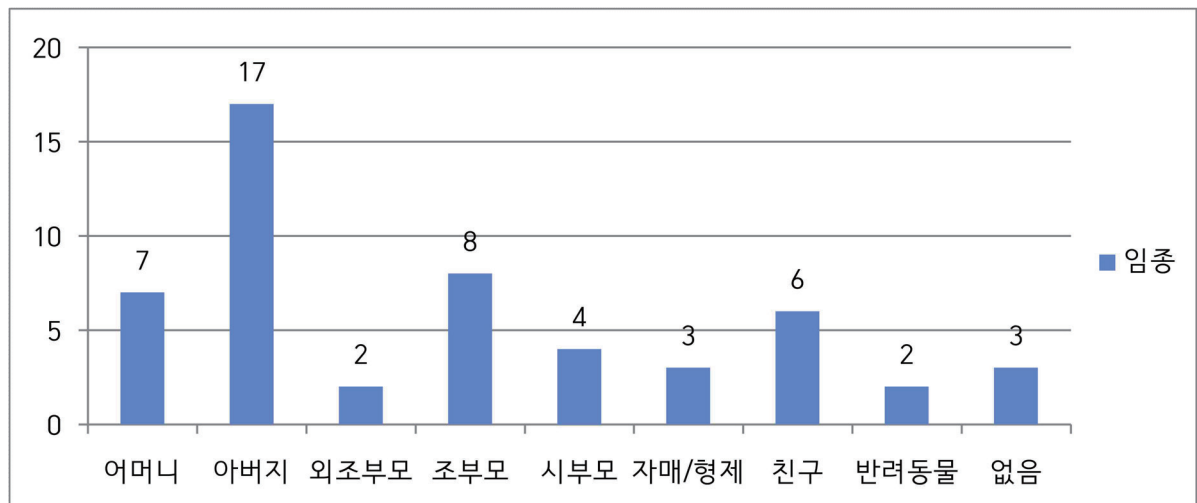


2. 내가 경험한 가까운 존재의 죽음과 임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누구의 임종을 경험했나요?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가장 많음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반려동물(고양이) 등 다양한 경험 포함



2-2) 어떠한 임종이었나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암, 치매, 혈액암 등)

노환으로 인한 사망

급작스러운 죽음 (돌연사)

장기 요양병원에서의 임종 등

- 엄마는 혈액암 판정 후 요양병원에서 1년 반 동안 치료 중 사망하였다. 가족들과 아빠와 충분한 시간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 아빠는 엄마 사망 후 혼자 생활하시다가 낙상 후 일상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요양원에서 3년 지내시다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약간의 우울과 경증 치매였고 외로움에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곤 했다.
-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폐렴 등의 합병증과 함께 노화로 인한 자연사에 가까웠음. 임종하실 것 같으니 요양병원으로 오라고 했으나, 먼 거리에 있어 임종 과정은 가족 중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고,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빈 것이 전부다.
- 84세에 노환으로 인한 죽음이었고 한 달간 곁에서 임종을 준비했다.
- 1인 가구였는데, 많이 아프다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서 그대로 혼자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 갑작스러운 병사, 뇌암. 본인이 당신의 투병을 숨기고 잠적해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부고가 날아옴.
-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심.
- 치매로 독립노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시다 임종.
- 무명의 싱어송라이터셨는데 타지에서 공연하고 택으로 운전해 돌아가는 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길 중앙에 정차했다면 누구라도 도움을 줬을텐데 그 와중에도 길가에 가지런히 정차하신 바람에 이튿날 늦게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 80세에 대장암 수술 후 건강히 지내시다 85세에 장기능이 다해 곧 돌아가실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고향에 있는 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자식, 손자들 모두 찾아와 인사했고, 당신은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불안 없이 편안히 며칠간 지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도 온전하셨고, 임종을 지킨 외숙모 전언으로 주무시듯 떠나셨다 합니다.
- 귀가길에 전철에서 돌연사하셔서, 임종 과정을 지키지 못했고, 그냥 장례식장으로 가야 했다.
- 부부끼리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대장암 말기 선고받고 석달 만에 떠났다.
-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병이었고, 병원입원, 퇴원과 죽음 과정을 모두 경험함.
- 세월을 따라가신 자연사 이지만.. 당시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장례 참석을 못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아빠께선 새벽길에 걸어오시다가 뺑소니 교통사고 당해 돌아가셨고 그 날은 저의 중3 졸업식날에 장례식을 치뤘어요
- 엄마께서는 작년10.25 집에서 고혈당,고혈압,심부전,치매,염증성장질환 장루장애,심정지로 돌아가셔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 그 다음날 무빈소로 납골당에 모셨어요
- 절실하게 집에 가고 싶어하셨지만, 주보호자의 반대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으셨다.
-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임종
- 건강하다 생각했던 분이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돌아가서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장례를 치루게 됨
- 간암 말기 환자였고 호스피스를 원하지 않으셔서 일반 병실에서 고통스럽게 통증을 느끼며 돌아가셨습니다
- 60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사망
- 7년여의 암투병으로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과정을 치르고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다.

- 암으로 인한 임종
- 암 말기에 발견되어 2년 정도 통입원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마지막 기간에 집에서 엄마(부인)의 간호를 받았다. 따로 살았지만 임종은 지킬 수 있었다.
- 직장에서 가족의 전화를 받고 고향에 내려가서 임종과정은 지키지 못했고 곧바로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금방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셔서 임종의 의미가 없었고 임종을 하지도 못함
- 아버지가 오래 폐암을 앓으셨고 병원에서 오늘은 힘들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하셔서 응급실에서 임종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산소호흡기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천천히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 의식이 없어 보였지만 청각은 살아있다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들은 것 같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아쉬움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 치매로 오래 앓으셨는데,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모셨다가 며칠 만에 돌아가심. 나는 멀리 살아서 임종을 못 지키고 장례식장에서 뵈었다.
- 조부모, 부모는 연세가 많으셔서 아픈 후 돌아가거나 수명을 다하심, 연인은 암으로 투병후 돌아가심, 고양이는 엄마가 돌보지 못해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었는데 10일을 못넘기고 무지개다리 건넌.
-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임종.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출발했지만, 그 전에 돌아가셔서 간병 중이던 배우자만 임종을 지키
- 그냥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 암투병하시다가 뇌졸중을 겪으셨고, 암이 발병한 지 3년 차에 돌아가셨습니다. 미리 연명치료 계획을 쓰지 못하셨는데 병실에 계시던 중에 악화가 되셔서 기도삽관으로 인공호흡기를 한 채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었습니다. ㅠ
-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 돌아가심. 연락을 받고 갔으나 임종을 보지 못하고 시트로 가려진 시신을 보게 됨
- 중환자실에서 1달 누워계시다 임종
- 엄마: 호스피스 병동에서 준비 잘 하시고 존엄하게 가족들 다 있고 얼굴도 보시고 임종
아버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곡기를 끊으시고 스스로 임종 준비
아버님: 병원에서 입원 중 좀 회복되시고 대세도 받으시고 손주 돌잔치 날짜 손꼽으며 지나고 나자 안심하시고 임종
-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고 그날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지켜보았음.
-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갑자기 심장마비로 생각도 못 했다
-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다 집에서 재택사를 원하셔서 돌아오셨어요. 오래전이라 집에서 염하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장례 절차를 처음 봐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 임종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분의 할머니 중 한 분은 돌아가신 후 병원 베드에서 뵈었고, 한 분은 1주일 전에 중환자실에서 뵈었다.
- 임종이 거의 가까운 상황에서 만났고 몇 분도 안 지나서 임종함.
- 흑색종 피부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서 아들, 며느리, 손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집

에서 지내시다가 새벽에 잠드신 채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지셨다.

- 요양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으나 임종 과정은 지키지 못하고 임종 후 뵈었다.
- 위암 말기로 고생하셨다가, 돌아가셨으면 임종 과정부터 장례식까지 함께 지켜드렸습니
다.

2-3) 그 임종 경험은 내게 어떻게 남아있나요?

후회, 아쉬움, 죄책감 등의 감정

애도의 어려움

돌봄의 의미와 과정에 대한 성찰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

-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 너무 큰 슬픔
- 후회와 아쉬움
- 나의 노년에 대한 두려움 / 입관을 처음 경험해서 충격
- 갑자기 돌아가셔서 처음엔 충격. 길게 고생하지 않으신 게 더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함
- (치매 진단 -> 약 복용하면서 집에서 생활 -> 악화로 집 근처 요양시설 입소 - 시설 불
만족으로 시설 이전 - 비정기적 노인성 질환(폐렴 등)으로 종합병원 입퇴소 반복 - 도립노
인병원 입원 - 임종) 정보를 혼자서 검색하며 알아보는 것이 힘들었음 / 질환의 특성상
함께 추억과 사랑을 나누며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됨
- 병원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혼자 사망하게 내버려둔 것 같아 죄책감 있음.
- 그냥 하나의 절차라는 생각
- 돌아가신 분을 이해하거나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죄송
- 할머니가 인생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시간은 없었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고 존엄
한 죽음이었을 것이라 생각됨
- 염하는 과정에서 엄마를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음. 엄마에 대해 계속 추억하고 얘기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서 다행. 여러 사람들이 눈을 마주쳐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됨. 슬픔과 애도는 혼자 견어내기 힘든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됨.
- 항암 받지 않고 차분히 죽음을 준비하는 편이 나았을까? 나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까?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 질병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움은 여전히 있고. 생각하면 눈물나요.
- 아빠,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아팠다
- 임종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빠를
집으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오래도록 남았다. 나 역시 결코 병원에서의 임종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한 죽음을, 내가 원하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심장이 멎자 의료진이 올라타 전기 충격하는 바람에 트라우마가 남아 수년간 괴로웠음.
- 동생들 사촌, 이모 등 친인척과 엄마에 대한 추억을 나눌 수 있어 좋았으며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서로 토닥일 수 있어 고립감에 젖어 들지 않았던 것 같음
- 언제나 죽음이 삶의 턱밑에 있다는 사실. 차갑고 딱딱한 시신을 쓰다듬었던 감촉. 애도
를 하며 글쓰기를 시작한 일.
- 퇴직 이후 외로운 아버지를 따뜻하게 보살피지 못했다. 아버지를 제대로 살피 드리지 못

한 죄책감이 꽤 오랜 시간 있었다.

- 시간도 공간도 숨도 멈추는 죽음은 차원이 다른 삶의 일부분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자.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자 미리 유언장 쓰자
- 내게는 갑자기 닥친 일이었다.
- 바로 장례 절차 진행해야 해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 스트레스의 위험성 절감
- 이미 의식이 없는지 오래되셔서 슬프거나 실감이 나지 않음
- 약간은 덤덤하게 루틴처럼 진행인 되는 느낌
- 치매를 오래 앓으셔서 소통이 없는 채로 돌아가신 게 아쉬움
- 연인의 죽음은 애도의 과정을 알지 못해 마음의 병이 되었는데, 죽음에 관해서 예술 치료 공부를 한 뒤로 더 나아짐. 충분히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음.
-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음.
- 임종 전의 며칠은 예상치 못했던 악화로 당황스러웠고 슬픔에 젖게 되었습니다.
- 요양병원 방에 방치된 시신을 보며 인간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함. 내 늙음과 죽음에 대해 통제(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 인간이 삶에 관해 갖고 있는 의지에 대해 생각
- 가족들이 엄마 임종 후 모습이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큰 선물을 받은 듯 여기고 있다.
- 호스피스 병원이어서 가족들과 이별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잘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 임종을 지키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친숙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상실감
- 투병을 오래 하시고 가족들도 지친 상태여서 큰 감정은 없었다
- 덤덤하지만 한편으론 애석한 마음, 복잡미묘했습니다.
- 친구들의 문상이 큰 위로가 됨을 알았습니다
- 하루하루 후회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함
- 병실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 눈이 부끄러워서 평상시에 하던대로 아버지 끌어안고 뽀뽀하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안아드리지 못했던 일이다

2-4) 그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임종 준비와 돌봄에 대한 정보 부족

장례 및 요양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죽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덕으로 모셨다면 어땠을까.
- 금전적인 여력과 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재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면 좋겠다
- 응급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아직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아 공부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고독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가족이 만족스럽게 믿고 입소시킬 수 있는 요양시설이 있다면 좋겠음. 즉 내가 나중에 입소하고 싶은,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과연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함
- 지역별로 이런 요양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언니의 경우 간단한 시술을 하러 들어갔다 급 위독해서서 급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라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암이라던지 다른 질병이라면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한 케어하고 케어받고 하다가 되도록이면 대형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에서 간병인만 있는 상태에서의 사망만은 피하고 싶다.
-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눈감으시는걸 봐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
- 갑작스런 심장마비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할머니는 8명의 자식과 20명 가까운 손자녀를 두셨던 만큼 가족의 돌봄을 받으셨지만, 자식이 없는 내 경우는 솔직히 어떤 임종을 맞게 될지, 내가 죽을 때 누가 곁에 있을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 임종과정을 잘 몰라서,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 걱정 항암 치료에 대한 정보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 아빠가 많이 아프셨었고, 과정에서 아빠에 대한 마음도 조금 먹을 수 있었어요. 어쩔 이렇게 죽음의 경험이 없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동생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의 상담과 조언이 큰 도움이었어요. 사람도 그럴거라 생각했어요.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의료인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 그 당시는 어른들이 다 진행하시는 일이라 크게 느낀 점은 없고..
- 앞으로의 나의 죽음을 고민 중..
- 엄마를 병원에서 케어했다라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집보다는 병원이 더 케어하기 수월할 것이다
- 위중한 병이 있어 통증치료가 필요하다면 호스피스 병동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의 안온한 죽음을 원한다. 돌봄 전문인력을 통해 죽음과 돌봄 문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은 있으면서 임종실은 왜 없는가. 불필요한 연명치료, 죽음의 질병화 바뀌어야
- 요즘은 가족이 있어도 독립가구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음.
- 자녀들도 따로 산다면 나 홀로 병간호를 하다 고독사를 할 경우 임종을 함께해 줄 수도 없고 오래 방치될 수 있음. 돌봄 전문인력이 있다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마감을 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듬.
-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죽음을 회피하고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로 인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을 살피고 관리 하는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의 속해 있었다라면 쓸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임종 후 사후처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아빠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병원에 계실 때 우리를 부르셔

서 하신 말씀들이 위로가 된달까 임종전후 등에 대한 안내서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지만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어서 아빠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도 물어보지 못 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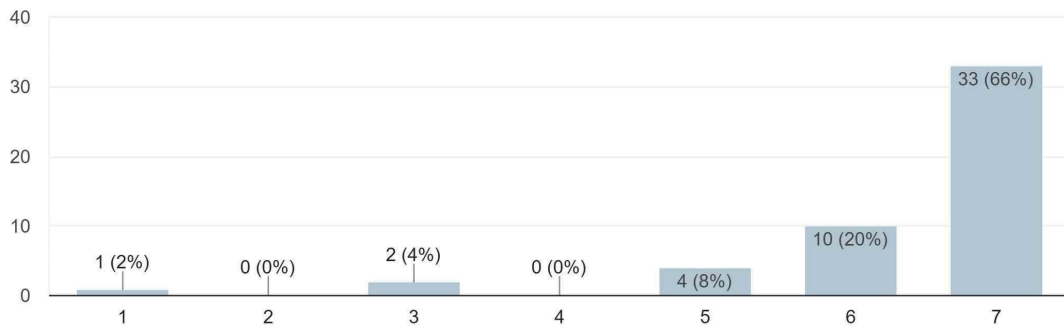
- 말기라 치료거부를 당하다 끝내 병원서 죽음 집에서 죽었다면 좋았겠다
- 의식이 살아있을 때 생전장례식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육체적 죽음으로 이별하기 전 인사도 하고 신변정리도 끝내두고 싶었음
-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고 가이드가 있었으면 이런저런 소통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소통하기를 일찍이 포기했던거 같다.
-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시간만 연장하는 것이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 생각해보게 되었음. 한편으로 친정아버지의 경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중환자실에서도 손쓰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기적적으로 회복함. 상반된 두 경험을 통해 자식 또는 가족으로서 연명치료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됨
- 부모님들은 아파도 집에서 앓다가 가고 싶다고 하시지만 자녀들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됨. 임종을 앞둔 분들의 돌봄 전문 인력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안심 할 수 있을 것 같음
- 해결책이라. 어렵고 잘 모르겠다.
- 미리 연명치료 계획서를 쓰지 못했기에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삽관까지 하게 한것이 너무 안타깝고 바라보기가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ㅠ
- 내 죽음에 대해 내가 결정하고 통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치매와 같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음.
-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명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본인에게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의사를 물어보았어야 함)
- 호스피스 병동이 병원마다 입원기간이 다르다는 점
- 호스피스 병원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돌아가실 경우에 지역사회에 임종 관련 돌봄 전문인력이 집으로 와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 임종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요즘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는 좀 더 개인적이고 덜 의무적인 느낌이 있었던거 같아요.
- 장례식장이라는 시스템 전반이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상 대안이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어렵다. 그래도 꾸준히 고민해보면 좋겠다.
- 집에서 임종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나
- 1인 가구인 본인이 부모의 재탁사를 원한다고 해도 돌봄을 전담할 사회적 체계가 없다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에서 돌보는게 쉽지 않다.
- 돌아가시고 나서, 문자 보내는 일을 직접 해야 했었는데. 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지인들을 찾아서 직접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런 통보나 문자 관리, 연락망과 같은 일들은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락처에 없어서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3. 나의 임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임종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그렇다(6~7점)**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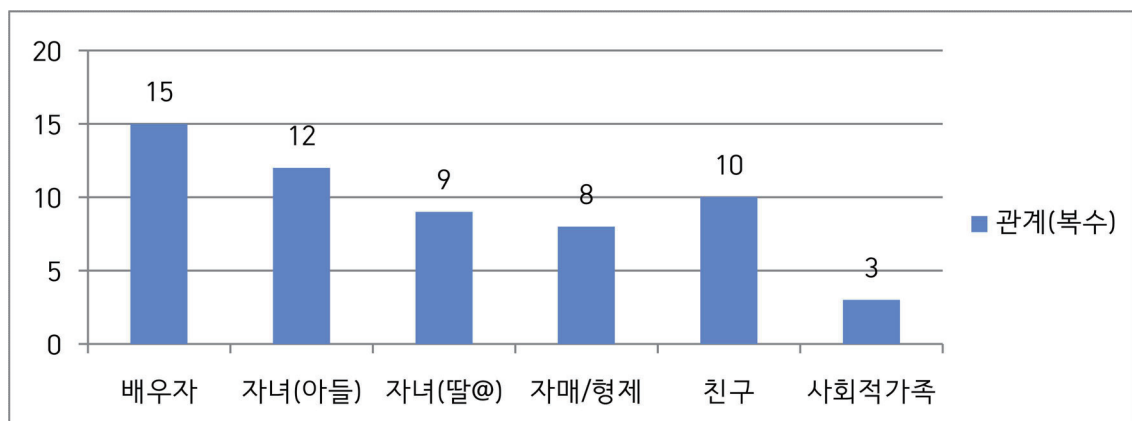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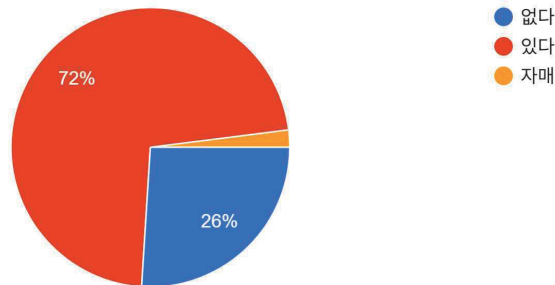
응답 50개



3-2) 나의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있다고 응답 (자매, 배우자, 자녀 등)

응답 50개



자녀를 지칭할 때 아들, 딸, 자녀로 응답했음. (아들이나 딸로 지칭할 경우는 1인 자녀를 둔 경우로 해석됨)

3-3) 다음 중 조금이라도 준비된 것에 체크해 주세요.

- 아직 없음 (2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14)
- 상조보험 가입(13)
- 유서 작성(6)
- 장기 기증 의사 등록
- 장례 방식 선택 (화장/매장 등)
- 호스피스나 요양병원 정보 파악
- 가족과의 대화나 유언 공유
- 경제적 정리 (보험, 재산 정리 등)

3-4) 어떤 임종을 원하십니까?

- 사전에 미리 준비한 죽음 (신변 정리, 유언, 작별 인사 등)
- 고통 없는 평온한 죽음 (자연사, 수면사)
- 연명치료 없이 존엄하게 임종
-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죽음
- 병원보다는 집에서 죽고 싶다
- 혼자 조용히 죽고 싶다
- 자연스러운 죽음

3-5) 나의 임종 관련 가장 큰 고민

-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
-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 중환자실에서의 죽음
- 치매 등으로 자아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노년기 생활에 대한 걱정)
- 남은 가족과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
-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

4. 누군가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내가 상주가 된다면 그 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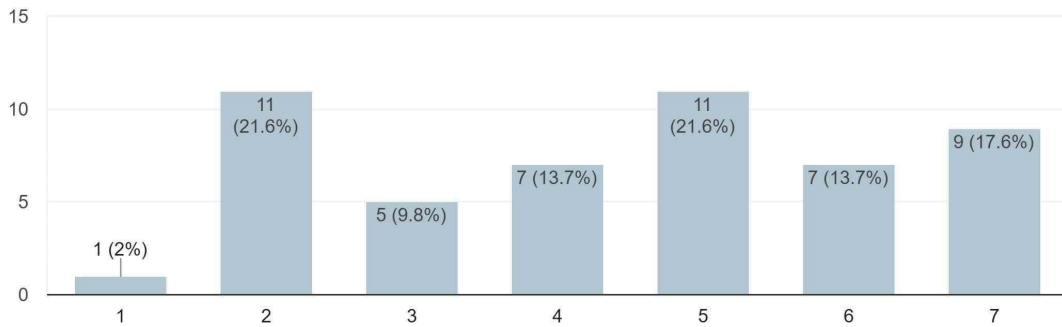
- 부모(시부모 포함)(30)
- 반려동물(6)
- 배우자, 자매/형제(5)
- 자식 또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음

4-2) 임종 및 장례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잘 알고 있음 (7점)**부터 **전혀 모름 (1~2점)**까지 다양

지역사회 내 임종 관리 네트워크 준비모임 <프리카레>

응답 51개



4-3) 상주로서 가장 큰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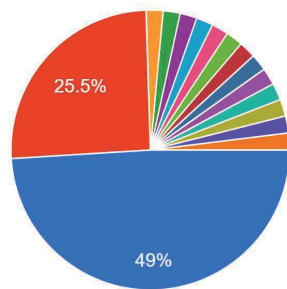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미 겪어봐서 큰 고민이 없음
 정보 부족, 감정 소모(가족들과 갈등 등)
 장례 절차는 익숙하지만 임종 전 준비는 어려움
 침착하게 잘 대처하고 싶음(인사할 기회 마련 등)
 없음

4-4) 임종 사례 집담회 참석 의향

있음(25명)

없음(13명)

응답 51개



- 예, 있습니다.
 - 아니요, 없습니다.
 - 상황에 따라 참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시간이 된다면
 - 시간이 맞다면
 - 지방이라 고정적으로 서울가는 날과 겹쳐...
 - 제주에 있습니다
 - 온라인이라면
-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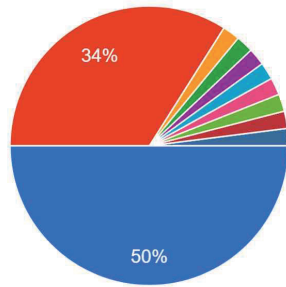
4-5)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의향

있음(25명)

없음(17명)

지역사회 내 임종 관리 네트워크 준비모임 <프리카레>

응답 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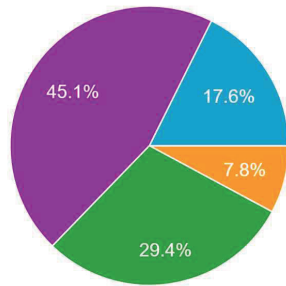


- 있다
 - 없다
 - 특별하지 않은 임종인 것 같아 공유하는게...
 -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서 공유는 안하겠습니다...
 - 아버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경황이 없어...
 - 모름
 - 경험이 해당 취지에 맞을 것 같지가 않아...
 - 고민이 필요
- ▲ 1/2 ▼

4-6) 응답자의 연령대

- 50대(23명)
- 40대(15명)
- 60대(9명)
- 30대(4명)

응답 5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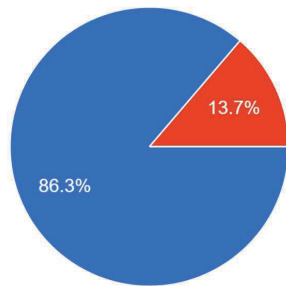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4-7) 성별

- 여성(44명)
- 남성(7명)

응답 51개



- 여성
- 남성
- 밝히지않겠음.

발행일 : 2025년 10월31일

발행처 :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기 획 : 여성미래 <튼튼한 프리카레>

후 원 :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Finance & Service Ubuntu Fund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Woman's Job & Future